Facciamo!

- 서울 음악대학 성악과 오페라 스터디 동아리
- 'Facciamo!'는 이탈리아어로 '우리 함께하자!'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 방학을 이용해 오페라 전곡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으며, 2006년 여름방학에 진행한 오페라 '라보엠' 연구를 시작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.

오페라 '코시판투테'(Cosi fan tutte; 여자는 다 그래) 공연

- 2017년 9월 11일(월) 저녁 7시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무료 공연
- 오페라 코시판투테는 로렌초 다 폰테가 쓰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2막의 오페라 부파다. 모차르트 걸작 3부작의 하나로 꼽힌다. 관능적이고 여성적이며 아름다운 음악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심리를 잘표시한 가장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.
- 주요 배역
 - 피오르딜리지(나폴리에 사는 페라라의 귀부인) 역 손미소(성악 12) 입소영(성악 13) 학생
 - 도라벨라(피오르딜리지의 여동생) 역 김민혜(성악 15)·조은(성악 14) 학생
 - \circ 굴리엘모(피오르딜리지를 사랑하는 장교) 역 김성준(성악 89) \cdot 윤한성(성악 14) \cdot 김창윤(성악 14) 학생
 - 페르난도(도라벨라를 사랑하는 장교) 역 김종영(성악 13) · 이석빈(성악 11) · 명성은(성악 14) 학생
 - 돈 알폰소(노총각 철학자) 역 손기록 학생(성악 16)
 - 데스피나(두 자매의 하녀, 닥터 메스메) 역 윤나리(성악 14)·강소현(성악 13) 학생
- 피아노 듀오에는 박설빈(피아노 13)·신민철(피아노 학사 10·음악학 석사 17) 학생
- 해설 및 반주에는 신영주 성악과 겸임교수 참여